

청춘, 아름답다 그 이름

리 정 철

나는 아침을 기다린다

산에도 들에도 거리에도
 은빛세계를 펼쳐놓으며
 소리없이 내리는 하얀눈
 어디선가 들려오는 까치소리
 새소식 알려주는 까치소리 정다워라

흰눈이 내리는 이런 아침이면
 더욱 기다려지는것인가
 먼길 떠난 어머니를 기다리는듯
 더더욱 사무치게 어퍼오는
 아, 자애로운 우리 원수님 그 영상

서둘러 펼쳐드는 《로동신문》에
 오늘은 실렸을가
 온 나라를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정을 주시는
 원수님 소식
 우리의 원수들에게는 철추를 안기는
 승리의 소식이!

그리움에 불타는 이 마음
 하늘에 물으랴 땅에 물으랴
 머나먼 전선길 흰눈을 맞으시며
 병사들을 찾아 철령을 넘으신것은 아닌지
 《바다 만풍가》의 노래 더 크게 울리시려
 바람부는 포구길을 걸으신것은 아닌지

그리워라
 바람불어도 눈이 내려도

천리라도 만리라도 하늘땅 끝까지
 오직 원수님 그 품에 운명을 다 맡기고
 따라서는 이 마음이어!

안녕하시라 어버이이시여
 크나큰 기쁨을 안으시고
 한시라도 쉬시옵게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놓으시게
 오늘의 말은 일 더 잘하리라

우리 원수님
 늘 내곁에 계시는듯
 일 더 잘하라 가르치시는듯
 그 음성 다심한 어머니의 목소리되어
 이 심장에 울리어와라

뵈고싶은 이 마음 끝없이 불타오르고
 이 한몸 다 바쳐 원수님을 결사옹위해갈
 신념의 노래 가슴에 차넘친다
 천만이 총폭탄되어 그이를 사수할 메아리
 이 강산에 울려간다

오, 아침이어!
 우리 원수님을 받들어갈 그 약속으로
 천만군민의 마음속 언약을 삼가 없으며
 나는 아침을 기다린다!
 우리 원수님 소식을 기다린다!

잠모르는 밤이어

못별 총총한 밤하늘을 태우던
 우등불도 사위여지고
 새벽노을 이룩이룩 타고르른
 건설장의 이 새벽

또 한밤 솟구쳐오른 언제우에서
 구름타고 훌훌 떠가는 이 마음
 잠들고싶지 않아라
 하루를 백날천날로
 온 심신을 불사르고싶은 열기여

잠들고싶지 않아라
 아침저녁으로 강산이 변모되고
 기적의 새 전설이 태어나는 이 세월
 저 앞산을 허물어 이 산으로 옮겨놓아
 단숨에 행복의 무릉도원 펼치고싶어라

미더운 돌격대의 동무들과
 더 마음껏 웃고 떠들고싶어라
 해염쳐가는 저 등근 보름달도
 문명의 새 거리에 내려앉히어

이 땅을 더 황홀하게 비치고싶은
청춘의 광만이여
잠들면 우주에로 치솟는 위성처럼
날으는 이 시대에 한결음이라도 뒤질가봐
두려워지노라
밤을 패워 일하고 또 일하며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를 덜어드리고싶은

이 청춘!
언제나 이 아침처럼
원수님의 돌격구렁에 남던져 화답하리라
최후승리의 붉은 기발
청춘의 이 손으로 틀어쥐고
하늘길을 날으다 만리마의 기수되어 내려친다!
최후승리봉을 향하여

청년동맹원

분조의 모판에 자주 찾아오는
리당위원장아바이
한번도 내 이름은 부르지 않으신다
새봄!
혹시 내 예쁜 이름 모르지 않으실가

질적질적한 진탕에 장화를 뿜으며
내 모판옆으로 벌써 들어서신다
눈물젖은 내 손을 잡으며
-청년동맹원! 잘있었나?

청년동맹원!
내 삼을 쥐고 모판의 두둑을 넓혀가는
리당위원장아바이
내 이름 몰라서 부르는 말일가

대지의 주인이 되길 바라는
크나큰 당부가 실린 그 부름
오늘은 왜 이다지도 심장은 높떨가
생각은 끝없이 깊어질가

청년동맹원! 새삼스레 올린 그 부름에!

모판을 부탁한다 흠뻑은 내 손을 잡아주고
리당위원장아바이는 저 멀리 둔덕을 넘어가도
내 가슴엔 그냥 울리는
청년동맹원!
청년동맹원이란 그 부름!

그래 난 땅을 가꾸는 농민이기 전에
조선로동당의 청년전위
다시금 새롭게 갈마드는 충정의 맹세
사랑하는 농장벌에서
청춘의 아름다운 꿈을 꽃피워가리

저 멀리 하루해가 잠자리로 내려앉은
저녁노을속에 비껴오는 우리 리당위원장아바이
가슴에 감쳐돌던
애국의 불꽃을 튀겨주고 떠나가누나
심장의 불을 지펴주고

청춘, 우리는 여기서 만난다

다정한 동무들아
난 그대들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건마는
번져가는 《청년문학》잡지의 갈피우에서
나는 그리여본다 그대들의 미더운 얼굴들을
그리고 그대들의 맑은 목소리를 듣는다
그대들의 샘물처럼 맑은 마음을 읽는다

청춘은 말그대로 불타오르는
시이다! 노래이다!

소셜이다!
우리 서로 단 한번도 만난적 없어도
우리 또한 단 한번도 헤어진적 없으라
동무들아 우리는 여기서 만난다

우리는 여기서 만난다

투쟁의 노래 《청년문학》잡지에서
여기선 다 만난다 듣는다 본다 이야기한다

세계의 푸른 하늘에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목메여 터치던 처녀축구명수 그대의 목소리를
원수님 공장에 찾아오신 그날
무지개를 짜듯 비단실을 늘여가던
조사공 그 처녀의 모습도

칼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전진하는 백두청춘이여!

원수님 안겨주신 그 믿음 안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불사신되어 일떠세운
청년맹장들도 우리는 여기서 다 만난다

여기서 우리는 단 한번도 잠들지 않는다
못별들은 졸고졸아도
우린 그냥 속삭인다 이야기한다
청춘! 포부! 미래를!
세월은 흘러도 헤어지지 않고 우리 여기서
당을 받들어갈 피끓는 맹세를
그냥 쓰고 또 써나간다

청춘은 강하다
우리가 불같은 청춘임을 우리는 안다
위훈이 맥동치는 그 글줄들에서
단천으로 관광지구건설장으로 떠나며 화답하는
은 나라 청춘의 발구름소리를 듣는다

불씨를 안고왔다가
우리는 여기 《청년문학》잡지에서
만나 포옹하고 웃고 떠들며
광명한 미래! 미래를

태일이 아닌 오늘로 당겨오며
또다시 우린 기적의 불꽃을 터뜨리며
원수님 가리키신 새로운 승리의 전구들로
어깨결고 또다시 떠나간다

투쟁의 노래를 언제나 안고가면
밤중에도 새벽노을 마음엔 피어나리
우리 이렇게
혈연의 련계를 이루며 우리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지거니!

오!— 우리 한번도 만난적 없어도
단 한번도 헤어진적 없거니!
동무들아! 전우들아!
우리는 여기서 만났다 헤어진다
우리는 여기에서 만난다!

(락랑구역 정백1동 제26인민반)

가사

건설자 나의 노래

계영태

행복의 웃음 넘치는 새 집에
우리의 더운 땀 깃들여있다네
아버이 그 뜻을 꽃피우는 우린 건설자
라 우리 당 따라서 긍지드높이
흘리는 구슬땀엔 행복이 있다네

인민의 기쁨 넘치는 창가에
샘같이 바친 정 별처럼 빛나네
아버이 그 은정 새겨가는 우린 건설자
라 우리 당 따라서 영예드높이
떨치는 위훈속에 웃음꽃 핀다네

만리마의 기상 넘치는 강산에
만복의 별세상 펼쳐간다네
아버이 그 사랑 빛내가는 우린 건설자
라 우리 당 따라서 신심드높이
미래의 새 집을 오늘에 세우네

라 원수님의 인민사랑 꽃피워가며
값높은 삶의 노래 이 땅에 남기리

(만포시 별오동 제44인민반)